

최적성 이론을 통한 외래어 표기법의 재해석*

-가나의 음절말 비음을 중심으로-

카이모리 토키코

Abstract

Kaimori, Tokiko. 2015. 12. 31. **The reinterpretation of Korean Loanword Orthography through Optimality Theory :Focusing on the syllable-final nasal of Japanese.** *Bilingual Research* 61, 271-290. The corresponding Japanese ‘Kana’ list under the Korean loanword orthography is use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various problems caused when writing Japanese words in Korean using the corresponding Kana list and establishing an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minimize the problems.

As a preliminary, taking notice of the syllable-final stop <^(>), the Korean Loanword Orthography was analyzed through Optimality Theory. As a result, in the current orthography, it was confirmed that Clause 3 comes first than Clause 2 under Article1 which is the Notation Principle. Also the fact that the maintenance of phonological features of the original input is significant has been concluded. Furthermore, writing Japanese words in Korean was analyzed in such matter presented as above. As for the target of this study, the syllable-final nasal has been selected. After examining the results, writing Japanese words in Korean under Loanword Orthography demonstrates a different order of priority from above. With the analysis through the OT, being consistent with the Loanword Orthography principle and minimizing the gap between the input caused by phonological phenomena at the same time, <○(ieung)>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for the Japanese /N/. (**Kyung-hee university**)

*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 상세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 심사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몫이다.

【Key words】 Loanword Orthography(외래어 표기법), Kana(가나), Optimality Theory(최적성 이론), phonological phenomena(음운현상), syllable-final(음절말), nasal(비음)

1. 서론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를 한국어 어휘로 수용하는 경우의 철자법과 외국의 지명과 인명 등을 표기하기 위한 표기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혼재한다. 제1장에서는 표기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 국제음성기호(IPA) 및 일부 언어와 한글의 대응이 일람표로 제시되어 있다. 일본어의 경우 일본어 문자 체계인 ‘가나(히라가나, 가타카나)’와 한글의 대응이 정해져 있다. 제1장의 표기 원칙과 가나 대응 일람 사이에는 서로 모순된 규칙이 있다.

일본에서 출판된 많은 한국어 교재는 가나와 한글의 대응 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배우고 연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학습 단계에서 제시되는 표는 대부분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준거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외래어 표기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현행 표기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교육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본고의 목적은 외래어 표기법의 규칙을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을 통해 검증하여 표기법의 기반이 되는 제약과 제약 위계를 분석하고 일본어의 한글 표기의 상관관계를 체계화하여 외래어 표기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표기법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사는 이동훈(1996), 中島[나카지마](2007) 등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현행 외래어 표기법¹⁾은 1986년에 규정된 것이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제1장 : 표기의 원칙

<표 1>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에서 제시한 표기의 원칙

<p>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p>

상기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제2장에는 국제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와 언어 별 일람표가 제시되어 있다. 中島(2007:441-442)에 따르면 1986년에 7개 언어(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고, 나머지는 차례로 추가된 것이다. 2015년 10월 현재는 제2장의 일람표는 국제음성기호 및 18개 언어, 제3장의 세칙에는 21개 언어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²⁾. 일본어는 가나를 한글 표기하기 위한 대응표가 제시

1)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29&mn_id=97
2) 현행 외래어 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0043호)에 의거한 것이다.(2015년10월 현재)

되어 있다. *가나* 표기는 IPA 대응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음운체제와 한국어 음운체제를 바탕으로 별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가나가* 원칙적으로 음절 문자인 특성에 맞추어 <ナ ニ ヌ ネ ノ : 나 니 누 네 노>와 같이 음절 단위로 제시되어 있다. 일본어 음운론에서 특수박(特殊拍)이라 일컫는 요소에 대해서는 제2장의 일람표에서 발음(撥音)/N/을 <ㄴ>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3장의 세칙에서 축음(促音)/Q/을 <ㅅ>으로 표기하고, 장음(長音)/R/은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2 최적성 이론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 이하 OT)은 Prince and Smolensky (1993)에 의해 알려진 음운론의 이론이다. 최적성 이론에서는 기저형(Input)에서 생성부(Generator: Gen)와 평가부(Evaluator: Eval)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식적 기제(formal mechanism)를 통해 표면형(output)을 선택한다. Gen은 가능성이 있는 후보(candidate)를 무한히 생성하며 Eval은 제약(Constraint: Con)에 의해 최적의 후보형을 선택한다. 제약에는 보편성이 필요하나 언어마다 제약의 등급(ranking)은 다르다. 제약의 위반은 가능하되 가능한 등급이 낮은 제약을 최소한으로 어긴 후보형이 최적의 후보가 된다. OT의 주요 제약으로는 무표성을 선호하는 유표성(markedness) 제약과 기저형과 표면형이 동일함을 선호하는 충실성(faithfulness) 제약이다(松井·郡司[마쓰이·군지] 1993, 김희성 2001, 안상철 2003, McCarthy 2009 참조).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제약도표³⁾ (tableau)로 나타낸다.

3) A,B가 제약이며 제약들 사이의 선이 실선인 경우 등급이 A>B, 점선인 경우엔 A=B가 된다. 제약을 1회 위배할 때마다 해당 제약의 행에 *표시가 하나씩, 상위 제약을 위배한 경우에는 !표시가 기재되며 치명적(fatal) 위배라는 것을 나타낸다. 치명적인 위배를 범한 후보는 하위 등급에서는 평가 대상이

<표 2> 제약도표 /in_k/

후보(candidates)	A	B
☞ Candi ₁		
Cand ₂		*!

OT는 한국어와 관련해서도 어말 자음군 단순화, 음절접촉, 차용어 적용 등의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외래어 표기에 대한 연구로는 음절말 폐쇄음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구분석(1999), 박천배(2000), 김희성(2001), 김정아(201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모음 삽입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을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일본어를 일 대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틀 안에서 파악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체계로 검토하기 위해 OT를 기반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OT의 제약은 다음과 같다.

McCarthy(2009:65, 234), 김옥영(연도 :638)에서 아래의 두 제약을 이용한다.

- (가) IDENT(F) : 각각의 변별적 자질에 대하여 자질 값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약가족이다.
- (나) ALIGN-R(Lexical morpheme, Syllable) : 입력부 어휘 형태소의 오른쪽 가장자리는 출력부 음절의 왼쪽 가장자리와 그 끝을 맞춰야 한다.

IDENT제약은 기저형과 표면형의 변별적 자질을, ALIGN제약은 형태적, 통사적 구조를 유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약이다.

되지 않으며 음영 처리된다. 최적의 후보로 선택된 후보에는 ☞표시가 부여된다(안상철 2003:10-12 참조).

McCarthy & Prince(1993)에서는 말음법칙에 관하여 다음의 제약을 제시한다(조성문 2015: 58에서 재인용).

(다) Coda-Condition: 음절말은 오직 무성평폐쇄음, 비음, 설측음만 허용한다.

추가적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칭을 부여한다.

(라) CODA-CON(LW):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마) *Allophone: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3장에서는 (가)~(마)의 제약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3. 외래어 표기법의 분석

3.1 영어의 음절말 무성치경폐쇄음의 표기

외래어 표기법에는 다섯 가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중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제3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한국어는 7종성법(CODA-CON)이 매우 중요한 제약으로 종성에 나타날 수 있는 자음의 소리로 ‘ㄱ, ㄴ, ㄹ, ㅁ, ㅂ, ㄷ, ㅇ’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종성으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이 일곱 가지 음소 중 하나로 중화된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발음과 아울러 표기에 관해서도 제약이 되어 있다. 단독형으로 실현되는 경우 7종성법에서 규정되어 있

는 소리와 같아지나 7종성법에서는 무성치경폐쇄음 <ㄷ>이 허용되어 있는 자리에 치경마찰음 <ㅅ>으로 대체되었다. 7종성법은 표기에 대한 제약은 없기 때문에 종성에 나타날 수 있는 자음 자모는 다양하나 외래어의 경우 표기에 허용된 자모 자체가 일곱 가지인 것이다.

정희원(2001:204)에 따르면 어말 무성파열음은 일부 관용으로 원칙을 벗어난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받침으로 적는지 모음을 삽입하는지는 선행하는 모음의 종류에 달려 있다. 즉, 영어의 <ㄷ>는 모음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ㅌ>, 받침으로 적는 경우에는 <ㅅ>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2항의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표기한다.’는 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김정아(2013:712)에서는 이 표기에 대해 모음이 후행한 경우의 음운현상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어말의 <ㄷ>를 <ㄷ>으로 표기하는 경우, <인터넷이>와 같이 모음이 후행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 [인터넷지]로 발음된다. 이것을 제약도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은 /internet/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의 도표로 <ㅅ>으로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7종성법을 제약으로 설정한다. 단, 여기에서는 외래어는 표기도 일곱 가지(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허용된다는 가정적 설정을 추가적인 제약으로 삼으며 제약을 임시적으로 ‘CODA-7’로 설정하여 평가해보겠다. 하위 제약으로는 충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유무성 자질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평가해보도록 한다.

<표 3> /internet/의 한글 표기

	CODA-7	IDENT (place)	IDENT (manner)	IDENT (voiced)
1. 인터넷 [intənət]	*!			

☞ 2. 인터넷 [intənɛt]				
3. 인터넷 [intənɛt]	*!			

위의 경우, CODA-7 제약을 위배하므로 후보 1, 3은 치명적인 위배를 한 것으로 평가돼 후보 2의 <인터넷>이 남는다. 7중성법칙에 의해 세 후보형의 발음이 결국 동일하다는 것으로도 다른 후보형에 대한 검토는 필요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격조사 ‘이’가 결합돼 고모음[i]가 후행하는 경우를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평가해 보겠다.

<표 4> ‘/internet+/i/(nom)’가 ‘CODA-7’ 제약의 평가를 받는 경우

	CODA-7	IDENT (place)	IDENT (manner)	IDENT (voice)
1. 인터넷이 [intənɛ.tʰi]	*!	*	*	
☞ 2. 인터넷이 [intənɛ.dzi]		*	*	*
3. 인터넷이 [intənɛ.fi]	*!		*	

<표 5> ‘/internet+/i/(nom)’가 ‘CODA-7’ 제약의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IDENT (place)	IDENT (manner)	IDENT (voice)
1. 인터넷이 [intənɛ.tʰi]	*	*	
2. 인터넷이 [intənɛ.dzi]	*	*	*
☞ 3. 인터넷이 [intənɛ.fi]		*	

<표 4>처럼 CODA-7이 전제가 된다면 <표 3>과 같이 후보 2가 선택 되지만 만약에 CODA-7 제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표 5>와 같이 자질의 유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후보 1은 3개, 후보 2는 4개, 후보 3은 1개의 제약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외래어 차용에서는 단어의 단독적인 사용보다는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에 의한 발음 변화가 고려되어 어말 치경파열음은 <ㄷ>이 아니라 <ㅅ>을 적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고에서는 편이를 위해 외래어 차용 시의 표기에 대한 말씀법칙, 즉 외래어 표기법의 제3항을 ‘CODA-CON(LW: loanword)’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 CODA-CON(LW) 제약과 함께 정렬 제약인 ALIGN-R의 평가를 <표 5>에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internet+/i/(nom)이 CODA-CON(LW)제약의 평가를 받는 경우

	CODA-CON(LW)	IDENT (place)	IDENT (manner)	IDENT (voice)	ALIGN-R
1. 인터넷이 [intənɛtʰi]	*!	*	*		*
2. 인터넷이 [intənɛdʒi]	*!	*	*	*	*
☞ 3. 인터넷이 [intənɛʰi]			*		*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기서 하나 더 위배하고 있는 원칙이 있다. 제2항의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1958년의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 등에서는 ‘이음이 여럿이 있을 경우라도 주음만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추가적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한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절 구조 또는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 등을 고려하여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지켜지길

기대하는 원칙인 것으로 판단되며 위배의 치명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CODA-CON(LW)보다 하위 등급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제약을 편의상 ‘*Allophone(변이음은 표기하지 않는다)’로 일컫는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음절 경계에서 자음과 모음의 연쇄(C.V)이 나타날 때 선행 음절의 종성이 후속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는 연음 현상(CV)이 빈번이 일어남으로 ALIGN-R제약을 가장 하위에 등급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다.

(2) 외래어 표기법 상의 제약

CODA-CON(LW)≫IDENT(F), *Allophone≫ALIGN-R

연음으로 인한 구개음화 외의 음운현상(경음화, 비음화, 격음화 등)은 모두 일어나는 환경 하에서는 조건이 동일함으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3.2 일본어의 음절말 비음의 표기

이 절에서는 3.1에서 확인한 제약 위계와 일본어 *가나*의 한글표기법 상의 제약 위계를 비교해 보고 외래어 표기법 내의 제약 위계의 관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가나*의 한글표기법에 대한 개선점 유무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일본어는 음절말 파열음, 즉 축음 /Q/의 표기 <っ> 하나에 대해 변이음이 복수 존재하며 후행할 분절음의 영향으로 역행적으로 음가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어중의 자음 앞에 나타난다는 위치적 제약이 있으므로 앞서 확인한 외래어와 같이 음절말 파열음에 모음이 후행하는 환경이 성립이 되지 않아 같은 맥락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없다⁴⁾. 또한 *가나*의 한

4) 축음 /Q/는 원칙적으로 어두, 어말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후행하는 자음이 무

글표기법은 초성에 나타날 파열음도 다른 언어와 달리 어두와 어중, 어말을 다르게 규정하는 등 논의의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일본어의 음절 말 파열음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과도하게 복잡해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1에서의 논의와 맥락을 맞추기 수월한 어말에 나타나는 비음과 비교하도록 하겠다.

일본어의 음절말 비음 /N/은 표기상으로는 *히라가나*는 <n>, *가타가나*는 <ん>로 표기되나 변이음이 많은 소리다. 아래의 <표 4>와 같이 후행 음소에 조음 위치가 역행동화한다(齋藤[사이토] 2014: 94-95참조).

<표 7> 일본어의 음절말 비음

후행하는 음	/N/의 이음	예
양순파열음	양순비음	せんばい[sɛm.bai](천 잔) ほんも[hɔm.mo](책도)
치경파열음 경구개파찰음 유성마찰음	치경비음	せんだい[sɛn.dai](천 대/지명) ほんの[hɔn.no](책의)
연구개파열음	연구개비음	せんかい[sɛn.kai](천 회) ほんが[hɔŋ.ga](책이)
없음	연구개비음/ 구개수비음	せん[sɛn] (천) ほん[hɔn](책)
모음, 접근음 무성마찰음	비모음	せんを[sɛ̃.o](천을) ほんを[hoõ.o](책을)

일본어의 /N/은 현행 표기법 제3장에서 <ん>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의 로마자 표기법 중 훈령식(Kunrei, 訓令式)에서 <n>으로 적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비

성자음에 국한된다. 기타 분절음이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齋藤 2014:94-95 참조)

5) 표는 齋藤(2014: 94-95), 민광준(2002:124-134), Vance(2008:96-10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번역은 두 가지 이상 있을 수 있으나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음 중에서 치경음이 가장 무표적이라는 판단 하에 선택된 표기로 보인다. 지명 *せんだい*[sen.dai]의 경우, 후행하는 자음이 치경음으로 <센다이>로 적는 게 최적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양순음 앞에서는 <ㅁ>, 연구개음 앞에서는 <ㅇ>이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ㄴ>으로 적는 것은 *Allophone 제약 때문이다. 이것은 영어처럼 [n, m, ŋ]의 음운대립이 있는 언어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일본어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3.2.1에서는 *Allophone 제약이 하위에 등급화되는 일본어 표기법의 또 다른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せん[sen]을 한글로 표기하는 과정을 3.2.1과 같은 차례로 평가해 보겠다. 후보형으로는 한국어의 비음인 <ㅁ, ㄴ, ㅇ>의 세 가지를 설정한다. 이것은 CODA-CON, CODA-CON(LW) 모두 위반이 없으므로 IDENT제약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표 8> /seN/[sen]

	IDENT (place)	IDENT (manner)	IDENT (voice)
1. 셴[sem]	*		
2. 셴[sen]	*		
☞ 3. 쉰[sen]			

단독형인 경우에는 <셴>이 최적의 후보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말에 나타나는 /N/은 연구개음 또는 구개수음으로 발음되는데 <표 8>에서는 연구개음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구개수음으로 발음되더라도 위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연구개음이고 혀 몸 자질이나 전방성 자질 등 연구개음과 구개수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자질이 많으므로 어말에서는 <ㅇ>이 최적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음이 후행되는 경우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표 9> /seN/[seŋ]+i/(nom)

	IDENT (place)	IDENT (mannar)	IDENT (voice)	ALIGN-R
1. 셸미 [se.mi]	*			*
2. 셸니 [se.ni]	*			*
☞ 3. 셸이 [seŋ.i]				

<표 8>에서는 후보 1, 2는 음절구조가 바뀌어 CVC.V에서 CV.CV가 되어 ALING-R제약을 위배한다. 후보 3은 IDENT, ALIGN-R제약 모두 위배가 없으므로 최적의 후보형으로 남는다.

다음으로 유음화 및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인 あんり[an.ri]라는 이름의 표기에서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후보 2, 3은 표기는 같아지나 <ㄴ, ㄹ>의 연쇄에서는 유음화, 비음화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후보 2는 유음화, 후보 3은 비음화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후보 2와 같이 /안리/가 [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ㄴ-구개음화에 의해 선행 음절의 종성 및 후행 음절의 초성 모두 치경구개음화로 변하므로(강옥미 2011:126) IDENT(mannar)에서 두 번의 위배가 표시된다.

<표 10> /an.ri/[anʁi]

	IDENT (place)	IDENT (mannar)	IDENT (voice)	ALIGN-R
1. 암리 [am.ni]	*	*		
2. 안리 [a.ʎi]		**		
☞ 3. 안리 [an.ni]		*		
4. 앙리 [aŋ.ni]	*	*		

한국어에서는 비음과 유음의 결합은 유음화 또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원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기저형과 출력형을 비교하여 자질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것은 안리[an.ni]로 나타났으므로 최적의 표면형은 <안리>로 하여 비음화가 실현되는 경우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마찰음이 후행하는 경우를 검토하겠다. 치경마찰음도 있으나 성문마찰음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임의로 ㄹㅅㅍ[rɑu̇ːçɨ]로 설정하도록 한다. 공명음 뒤의 성문마찰음은 수의적으로 명확하게 발음되거나 발음이 약화되거나 무음화된다. 이 때 무음화되어 성문마찰음 자리에 첫 음절의 종성이 이동하여 초성화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검토하겠다.

<표 11> /ran.hi/[rɑu̇ːçɨ]

	IDENT (place)	IDENT (mannar)	IDENT (voice)	ALIGN-R
1. 램히 [ra.mi]	*	*	*	*
2. 란히 [ra.ni]	*	*	*	*
3. 랑히 [raŋ.i]		**	*	

<표 8>부터 <표 11>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는 음절말 비음이 나타나는 환경별로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 최적의 후보로 판정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6) Vance(2008: 97)에서는 모음, 접근음, 무성마찰음 앞의 모음을 설배연구개음 혹은 후설고모음이 장음 및 비음화된 반모음인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표 12> 환경별 최적 후보

/N/의 환경	최적의 후보
양순음 앞	ㅁ
치경음/경구개음 앞	ㄴ
연구개음 앞	ㅇ
어말	ㅇ
모음/활음/무성마찰음 앞	ㅇ
유음 앞	ㄴ

기저형 /N/이 놓여질 환경마다 출현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ㅇ>을 표기할 때 음운현상에 의해 원음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표기법의 가능성을 몇 가지 가정해 볼 수 있다.

- ① /N/를 한글 표기할 때 <ㅇ>만을 적용한다.

이는 영어에서 음절말의 /r/를 받침으로 적는 경우 <ㅅ>를 적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② /N/를 <ㅁ, ㄴ, ㅇ> 중 실제 소리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적는다.

외래어 표기법이 도입되기 전에 한국어에 차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함마(ハンマー), 밤바(バンパー), 벤또(弁当), 우동(うどん), 오덴(おでん), 만땅(満タン), 앙꼬(アンコ)’⁷⁾ 등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지에 따라 이와 같이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헵번식(Hepburn: へボン式)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N/을 <n>으로 적되 양순음 앞에서는 <m>을 적는

7)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에서 일본어 유래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사례를 제시하였다.

것이 허용되어 있다⁸⁾. 그러나 이 방법을 취하는 경우, /N/의 변이 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되며 표기법이 복잡해지고 학습 시의 부담이 커진다.

- ③ 원칙은 /N/=<L>으로 하되, <ㅁ>과 <ㅇ>의 표기도 허용한다. 앞서 언급한 헵번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①과 ②의 절충법이다. 자유도가 높아지는 만큼 표기법의 통제가 완화되어 표기법의 존재 의의가 약화된다.
- ④ <L>을 적게 하는 원칙을 유지한다. 유표성 제약을 중요시한 보수적인 방법이다. 위에서 제기된 음운현상에 대한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3.1에서 확인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제약 위계는 다음의 (3a)와 같으며 *가나*의 표기법은 (3b)와 같다.

(3a) 외래어 표기법 상의 제약

CODA-CON(LW)»IDENT(F), *Allophone»ALIGN-R

(3b) 일본어 *가나*의 한글 표기법 상의 제약

*Allophone»CODA-CON(LW), IDENT(F)»ALIGN-R

①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경우, (3b)의 등급 관계가 변경되어 (3a)로 동일이 되며 전체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 간단해진다. 물론 본고에서는

8) 일본 작가 眞保裕一/siNpo yuuiti/가 한국에서 출판되는 번역서에서는 <심포유이치>로 표기되어 있다. *가나*의 한글표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포유이치>가 되어야 하나 이는 영미식 발음 위주로 규정된 헵번식(Hepburn)을 적용한 <Shimpo Yuichi>를 기저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인명 등에는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IPA 대응 일람 표에 가까운 방식, 외래어 표기법에 나와 있는 어느 방법과도 맞지 않은 방식이 흔히 보인다.

표기법의 일부만을 검토한 것이고 언급이 되지 않은 음소나 다른 언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현행 표기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분석 내용에 따라 ①의 /N/에 <ㅇ>을 대응하여 상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모음이 후속한 경우의 연음 현상에 의해 원어와의 괴리가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표 1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표성이 뛰어난 후보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무표적인 자음인 치경음인 비음 <ㄴ>을 버린다는 점에서 최적성 이론의 기본 개념인 유표성 제약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적용 시에 위배하게 되는 제약의 여부 등을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4. 결론

외래어 표기로 원어와 완벽하게 동일한 소리를 나타내도록 적용하는 것은 두 언어의 음운체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원어의 소리와 가깝도록, 그리고 표면형이 한국어의 음운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상반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나를 한글로 바꾸어 표기할 시 생기는 여러 문제에 주목하여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음절말 폐쇄음 표기 <ㅅ>에 주목하여 최적성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표기법에서는 음절말 파열음의 표기에 있어 제2항(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보다 제3항(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만 적

는다)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 확인이 되었으며, 제2항보다 원어의 음운 자질의 유지가 중요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일본어 *가나*의 한글 표기를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해 보았다. 일본어의 음절말 폐쇄음은 아울러 분석해야 할 요소가 많아 단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음절말 비음을 선정하였고 파열음에 대해서는 본고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제3장에서 규정된 일본어 *가나*의 한글 표기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보였다.

최적성 이론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음운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원어음과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어 /N/에 대응되는 한글 표기로 <ㅇ>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기에는 관습화된 <ㄴ> 표기와의 괴리가 클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현행 표기 <ㄴ>과의 병행적인 허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 제안에 대한 문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의 한글 표기 체계가 재정비되어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래어 표기법과 학습의 편이성 및 사회적인 실현성을 고려한 새로운 표기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어는 장애음이 평음, 격음, 경음의 3면 대립을, 일본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2면 대립을 보이는 음운 체계를 가진다. 한편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있는 언어는 매우 많다. 그러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일본어만 유일하게 장애음이 ‘어두와 어중 및 어말’의 위치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일본어의 /ka/는 어두에서는 <가>로, 어중·어말에서는 <카>로 적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Crosswhite(1999)가 제기한 ANTI-IDENT 제약(안상철 2003:115-129에서 재인용)을 위반

한다. ANTI-IDENT는 두 개의 다른 기저형이 표면형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제약이다. 장음화의 생략에 의해서도 같은 제약의 위반이 된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도 주목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한국어 교육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강옥미(2011). 『한국어 음운론(개정판)』. 서울:태학사.
- 강옥영(2005). ‘ㅎ’ 탈락 현상 연구: 강릉 지역어를 중심으로. <언어> 30(4). 한국언어학회. 631쪽~650쪽.
- 구본석(1999). 최적성이론에서의 영어 차용어와 모음삽입.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Vol.5 No.1. 한국음운론학회. 59쪽~77쪽.
- 김정아(2013). 영어 차용어 음절말 폐쇄음의 발현 양상 및 한국어 대응음의 고찰. <언어연구> Vol.28 No. 4. 한국현대언어학회. 697쪽~719쪽.
- 김희성(2001). 최적성 이론에 의한 영어 차용어 분석. <언어학연구> vol.6. 한국언어연구학회. 131쪽~149쪽.
- 민광준(2002). 『일본어 음성학 입문』. 서울:건국대학교출판부
- 박창원·김수현(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14권2호. 국립국어원. 59쪽~102쪽.
- 안상철(2003). 『최적성 이론의 언어 분석(개정증보)』. 서울:한국문화사
- 임동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41쪽~61쪽.
- 정희원(2000a). 외래어 표기법. <국어문화학교> No.3. 국립국어연구원. 299쪽~316쪽.
- 정희원(2000b). 외래어 표기법. <국어문화학교> No.4. 국립국어연구원. 193쪽~210쪽.
- 정희원(2001). 외래어 표기법. <국어문화학교> No.1. 국립국어연구원. 193쪽~210쪽.
- 조성문(2015). 『최적성이론의 국어 음운현상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齋藤純男(2014). 『日本語音声学入門』. 東京:三省堂.
- 中島仁(2007). 外来語表記法をめぐって. 『韓国語教育論講座』 第1巻. 東京:くろしお出版. 435쪽~462쪽.
- 服部四郎(1984). 『音声学』. 東京:岩波書店.

- 松井理直·郡司隆男(1996). 日本語の要素・構造・制約 —制約に基づく日本語音韻論の構築に向けて—. 『日文研叢書 10 制約に基づく日本語の構造の研究』(郡司隆男編). 京都: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183쪽~222쪽.
- MacCarthy, John J.(2008). *Doing Optimality Theory: Applying Theory to Data*. 이봉형·이승훈 역(2009). 『최적성이론 해보기 -이론과 실제-』. 서울:한국문화사
- Vance, Thimoty J..(2008). *The Sound of Japanese*.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웹사이트>

한국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http://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4&mn_id=97

카이모리 토키코(Kaimori Tokiko)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010-5117-1773

전자우편: t.kaimori@khu.ac.kr

접수일자: 2015년 10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23일